

경제

치솟는 원자재價, 경기회복 발목 잡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의 실질구매력 감소 및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달러 약세로 가격인상 부추겨 국내 체감경기 급속 악화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 이후 달러가치의 급락, 수급불균형 지속 등으로 8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큰 폭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강세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달러 약세는 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저하시켜 투자자금을 원자재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시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므로 달러 약세는 원자재 수출국들의 수익감소 및 구매력 저하를 초래해 가격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및 투기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금 등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헤지(Hedge)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며 투기적 기수도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종합해보면 중국발 수요 증가세 지속, 바이오 연료 생산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확대에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가세해 당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2002년 1월 102에서 올해 7월에는 69.8로 크게 악화됐는데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해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교역조건 악화는 경상수지 및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 및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곡물가격의 급등세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감소 등 실물경제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증대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엔 28조원 든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8조원 가량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와 소득손실 등 약 27조6천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 시 피해예측 발생률을 30%, 1차 대유행기간을 8주, 그리고 연령별 고위험군의 비율을 0세~18세 4%, 19세~64세 11%, 65세 이상 37%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통비와 소득 손실을 포함한 총 외래진료 비용으로 약 1조1천억원, 간병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할 총 입원비용은 6천200억원,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이 약 17조2천억원, 그리고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이 약 8조7천억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원자재가 상승세에 기업 수익성 감소

중소 신용위험지수 3년만에 최고

은행들 대출 문턱 낮춰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여파로 올 4~4 분기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강화로 3분기 중 고베를 바짝 조였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다시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중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8로 전분기 16

보다 12포인트 급등했다. 이런 신용위험지수는 2004년 4분기의 32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플러스이면 신용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며 지수가 마이너스이면 신용위험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일부 중소기업 건설업체의 부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은행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방암 자가진단 해보세요  
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방암 인식 향상의 달인 10월을 맞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8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승객들에게 유방암 자가진단법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對러 수출 잘나가네

車 등 선전... 10대 수출국 진입

올해 들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에 진입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50억1천 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8% 늘어났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 기간 우리나라가 수출을 8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가 됐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상대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실적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1~8월 11위였고 지난해 전체로는 12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100% 이상 늘어났고 전자제품도 지난해의 3배 가까이 증가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러시아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29억3천만달러로 103.



0%, 전자제품 수출은 7억3천200만달러로 196.4% 각각 증가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다음으로는 플라스틱(5억100만달러), 선박류(4억7천 800만달러), 기계류(3억5천만달러) 등의 수출이 많았으며 이들 품목도 지난해보다 13~44%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상대국을 살펴보면 중국(519억2천500만달러), 미국(303억200만달러), 일본(170억5천만달러), 홍콩(118억8천만달러), 대만(87억4천5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공기업 다니는 신부감이 최고”

미혼남 61%가 선호  
교사는 2위로 밀려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10년 만에 '교사'에서 '공무원·공기업 사원'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전국의 20세 이상 미혼남녀 1천 462명을 상대로 한 결혼의식 설문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60.9%(복수 응답 가능)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공기업 사원'을 꼽았다. 듀오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결혼의식 설문조사에서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10년 내내 결혼 1

위를 차지했던 '교사'는 이번 조사에서 58.7%를 얻어 2위로 밀려났다. 예비신랑의 직업에서도 '공무원·공기업 사원'이 65.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금융직'(37%)이 뒤를 이었다. 예비신랑의 경우 10년간 1위를 차지한 직종이 '대기업 사원'에서 '전문직', '정보통신관련직' 등으로 변화를 거듭해오다 4년 전부터 '공무원·공기업 사원'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결혼준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남녀 평균 결혼적령기를 각각 31.6세, 28.1세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남녀 평균 결혼적령기를 각각 32.1세, 29.1세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해외증시 훈풍  
기업실적 기대  
2,000선 안착

코스피 '장중 최고치'  
지난 주말 대비 16.79P ↑... 2,012.82 장 마감

주식시장이 해외증시의 호조와 3-4분기 실적개선 기대감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8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16.79포인트(0.84%) 오른 2,012.82로 마감했다. 실적시즌 개막을 앞두고 사흘 만에 오른세를 출발한 지수는 장중 2,022.01까지 오르며 지난 7월26일 기록한 중전 장중 사상 최고치(2,015.48)를 돌파했으나 이후 프로그램 매도 여파로 상승폭이 줄었다. 코스닥지수도 개장 초 820.22까지 오르며 7월13일에 기록한 연중 고점인 841.09에 근접했다가 상승폭이 줄어 2.96포인트(0.36%) 상승한 816.47로 장을 마쳤다.

주식시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자 395개 개별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현대중공업, 신세계, 롯데관광개발, 제일모직, 대한항공, LG전자, 미래에셋증권, 대진증권, 삼성SDI, 한진해운,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등 208개 종목이 장중 종전 52주 신고가를 넘어섰다. 코스닥시장에선 대중주인 NHN과 LG텔레콤, 아시아나항공, 하츠, 이진참호, 솔믹스, 무학, 현진소재 등 187개 종목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상승은 고공지표 호조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다, 국내 실적시즌 개막을 앞두고 국내 주요 상장사의 3-4분기 실적개선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시장보고서를 통해 "주요 상장사들의 3-4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8.7%, 영업이익은 28.1%, 주당순이익(EPS)은 25.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적호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상장사들의 3-4분기 실적이 주식시장을 끌고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안착한 이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동산 실가 과세... 세수추계 하점  
세금 11조원 더 징수

올해 정부의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11조여원이나 상회한 것으로 과액과 세수추계 시스템의 하점을 또다시 드러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펴낸 '2007-2011년 세수추계 및 세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국내수입 전망치는 158조6천 424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국내수입 목표치인 147조 3천255억원의 7.7%인 11조3천399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도 세수실적인 138조443억원 보다 14.9%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수입은 152조6천101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41조6천318억원에 비해 7.8%, 특별회계 국내수입도 당초 목표치인 6.4%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3조594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올초에 이월된다"며 부동산 실가과가 과세확대로 종과세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수가 급증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자진납부율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은 정부 당국의 분명한 잘못"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양도과에 따른 추가 세수가 예상 밖으로 늘어나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으로 전기 사용신청  
기간 단축·방문·서류 제출 없애

건물에 새로 전기 사용신청을 할 때 일체의 종이서류가 없어도 신청부터 사용까지의 기간도 단축된다. 한국전력은 8일 한번 클릭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용신청 인터넷 포털인 'e-Power Portal'(www.kepcp.co.kr/cyber)의 구축을 끝내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새로 전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을 찾아가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 야했고 배전공사 협력업체 역시 공사시공과 준공서류 작성을 위해 한국전력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행정전선망과 연계된 전기사용신청 포털이 구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발급서류들의 직접 조회가 가능해지고 전기 안전공사 및 건설공제조합 전용망을 통해 안전점검필증과 보 증보완증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새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이나 한전 방문이 필요없게 됐다. 한전은 "1년8개월만에 포털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연간 약 800만건의 구비서류가 줄고 기간이 단축돼 연간 499억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columns: 업제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 from different companies.



주부 절반 '나만의 비상금' 22%는 1000만원 이상 숨겨놨다

우리나라 주부 2명 중 1명은 가족 물레 모아둔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커뮤니티 사이트 미즈(www.miz.co.kr)는 주부 1천126명을 대상으로 수입과 재테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금을 했다고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인 22%가 1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100만-199만원(20%), 200만-499만원(18%) 순이었다. '나만을 위해 쓰는 한 달 용돈'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8%가 10만원 이하라고 답했고 10만-15만원이 23%, 15만-20만원이 10%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